

“완도, 해양치유·해조류산업 글로벌 거점 도약”

전남도, 완도군 정책비전투어

해조류 탄소경제 등 9대 비전 제시

금지사 “해양 미래 도시 비상 확신”

미역 업체 탈락 피해 지원도 약속

천혜의 청정바다를 활용해 완도를 해양치유·해조류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지역 발전 청사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18일 오후 완도문화예술의전당 문화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의준 전남도의원,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신우철 군수는 환영사에서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1단계 구간 예타 통과 등 역점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완도 만의 해법이 토론을 통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블루푸드·블루헬스·블루카본 등 3대 엔진을 주축으로 완도를 확실히 키우겠다”며 “군민들이 지켜온 바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와 섬의 가치를 함께 기운다면 완도가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미래 도시로 비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은 이날 9대 핵심 비전으로 ▲세계 최초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경제 실현 ▲데이터-

AI 기반 스마트 수산양식 허브 조성 ▲식품·의약·소재 등 해조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완도 전복을 매개로 한 K-Seafood(케이-씨푸드) 수출 전진기지 구축 ▲해양치유·섬유·산림치유 등 3박자를 갖춘 글로벌 해양치유도시

조성 ▲장보고 대사 역사 재조명 ▲K-해양인문학&문화관광’ 르네상스 ▲안전하고 훌륭 넘치는 정주 명품도시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초연결 해양공역교통망’ 완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책현안 토론에서는 완도군민과 김 지

사, 전남도 실·국장 간 정책 제안과 답변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양식 미역 업체(포자) 탈락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가 줄을 이었다. 현재까지 완도 전체 미역 양식장의 50%인 17만3천29줄(2천381어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호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장은 “올해 이상 해황으로 업체 탈락 현상이 심해지면서 내년 미역 생산량이 감소하고 전복 면이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미역 포자 생산 시기가 종료돼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다시마 종자 구입비 지원이 어민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피해 조사를 연말까지 신속 추진하고 정부에 자연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꼼꼼 종자 구입비와 다시마 자재·종자 구입비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 어민들도 현장 복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완도 청해진유적 목교 개축 공사 지원, 활수물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교통 약자 이동지원사업 확대 지원, 완도호랑가시 훌리 축제 도비 지원 등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완도군민의 건의에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등 지원을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구성

의료·산업·학계·행정 참여

“연구·임상 등 연결된 최적지”

광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시청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기시작됨에 따라 광주가 보유한 치의학 관련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국민석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훈 조선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이정환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강홍원 (주)엔비아 대표 등 의료·산업·학계·행정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유치 전략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학과 병원을 통한 연구·인재양성 기반 ▲기업과 연계한 산업화 가능성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활용 용이성 ▲광주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과의 협업모

델 구성 ▲국가균형발전 실현 측면의 입지 적합성 등 광주의 유치 강점을 집중 논의하며 지역의 상대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광주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2개(전남대·조선대)가 위치한 광주는 연구, 임상,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최적의 도시로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도안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정기적 전략회의를 열고 차별화된 유치 논리를 마련하겠다”며 “시민 흥보와 여론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향후 후보지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평가 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변은진기자

광주·전남 정치권 “군공항 이전 합의 환영”

구청장협의회 “실질적 해결 향한 전환점”

시의회 “‘김대중공항’ 청신호 켜져”

도의회 “책임감 있는 실행이 중요”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의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합의에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장을 밝혔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18년간 표류해 온 숙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였던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마침내 역사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에 포함된 ▲주민지원사업 1조원 조성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도 이날 환영문을 통해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상생의 해법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을 넘어 호남권 전체 거점 공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공항의 무안 이전은 단순한 인프라 이전을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항공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항공산업 육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무안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충실히 반영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광주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서남권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변은진·인재영기자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한국보험공사
Korea Insurance Corpor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General Agents Association

IGRA 보험GA협회
Korea Reinsurance Association